

종합

정부, 광주R&D특구 육성 의지 있다

“대구와 동시 추진” 지정 늦어져 내년 국비 지원액도 7%만 반영

광주R&D(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석연찮은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데다, 특구육성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지원액도 광주시 요청액의 7%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특구육성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올해 안에 광주R&D특구를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도 보조를 맞추는 등 연내 광주R&D특구 지정에 촉구를 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민은 정부에서 연말까지 R&D특구를 지정해줄 것을 믿고 있으나 정부는 광주와 대구를 동시에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광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줄 R&D특구를 연내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특구지정을 위해 지난 7월 구역설정과 공청회·주민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해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완료했지만, 대

구는 경북도와 특구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정부는 ‘광주와 대구의 R&D특구를 동시에 지정하겠다’는 입장여서 대구와 경북도 간의 협의가 늦추지면 광주R&D특구 지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준비가 되지 않은 대구와 분리해 광주부터 먼저 특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내년에 특구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800억원을 요구했으나 65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아 정부의 특구육성 의지도 의심되고 있다”며 “지역민의 상실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민·사회단체, 지역상공인들도 조만간 건의 또는 관련부처 방문 등의 형태로 ‘광주R&D특구 연내 지정’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015년까지 첨단 1, 2, 3지구와 신동지구, 진곡지구, 장성 남면 일대, 나노산단 등 18.73km에 R&D특구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2월 지식경제부에 지정 신청을 했다. 광주시는 광주 R&D특구를 연 구단지 중심의 대역 R&D 특구와 달리 연구와 생산복합단지 및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공동 투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R&D특구를 통해 1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3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국 정원 세계 무대에 선다

극성출신 황지해씨 ‘해우소 가는 길’ 영국 첼시 플라워쇼 참여 작품 선정

1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정원문화 및 정원디자인의 경향과 흐름을 이끌어 가는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 한국 정원이 최초로 선정돼 세계무대에 서게 됐다.

9일 극성군과 (재)환경조경발전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첼시 플라워쇼를 주관하는 영국 왕립원예협회가 극성출신으로 광주 환경미술가그룹 ‘봄’ 대표인 정원 디자이너 황지해(35.여)씨의 ‘해우소 가는 길’을 내년 5월 열리는 ‘2011 플라워쇼’ 참여 작품으로 선정했다.

그간 독일 정원박람회 등에서 학생 공모전에 한국 출신이 선정된 적은 있지만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국제 대회에서 한국 작품이 선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황씨의 작품이 선정된 것은 한국 정원문화가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201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앞둔 시점에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황씨가 출품한 ‘해우소 가는 길’은 4X5m 공간 안에 생명의 환원과 ‘비움(空)’이라는 한국 전통 화상

실 문화가 가진 철학적 함의를 정원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첼시 플라워쇼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실을 정원 주제로 담아 심사위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황씨는 오죽(烏竹) 숲과 돌담에 둘러싸인 옛 화상실 가는 길을 정원의 중심공간으로 배치하고 그 주변에 다양한 한국 약용식물을 식재하여 선조의 민간요법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게 했다.

매년 봄 영국 런던의 템스 강변에서 5일간 펼쳐지는 첼시 플라워쇼는 1827년에 시작돼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180여 년 동안 지속한 세계 최대 정원 및 원예 박람회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영암 F1대회, 올해의 자동차 10대 뉴스 선정

F1 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10월 영암에서 열린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가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 발표한 올해의 자동차 산업 10대 뉴스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F1 대회는 화려한 볼거리와 17만여 명의 관람객, 국내 첫 국제 등급 A급 서킷 개장 등으로 전 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파급 효과를 인정받아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이와 함께 한·미 FTA 최종 타결, 국산차 수출금액 최초 530억 달러 돌파, 쌍용자동차 인도 마힌드라 그룹 매각 본계약 체결 등이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윤여철)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 대우,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국내 5대 자동차 기업이 회원사인 지식경제부 소관 비영리 법인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작년 신생아 생존 수명은 80.5세

통계청 발표...남자 암 사망률 28%

작년 태어난 아이들이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기간은 80.5년인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남자 아이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들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3대 사망원인에 의해 사망할 확률은 남녀 모두 40%를 웃돌았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09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0.5년으로 10년 전인 1999년보다 4.9년, 1970년보다는 18.6년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률 감소에 따른 것이다.

성별로는 남자 출생아는 77년, 여자는 83.8년으로 각각 전년보다 0.5년씩, 10년 전보다는 5.3년, 4.6년이 늘었다.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지난해 6.8년으로 1985년(8.4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다. 남자의 경우 기대수명이 가장 긴 스위스보다는 2.8년, 여자는 기대수명이 최장인 일본보다

는 2.3년이 각각 짧았다.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OECD 평균(5.7년)보다 높았다.

더 살 수 있는 기간인 기대여명을 연령별로 보면 ▲30세 남자 47.9년, 여자 54.5년 ▲45세 남자 33.8년, 여자 40.1년 ▲65세 남자 17.0년, 여자 21.5년 등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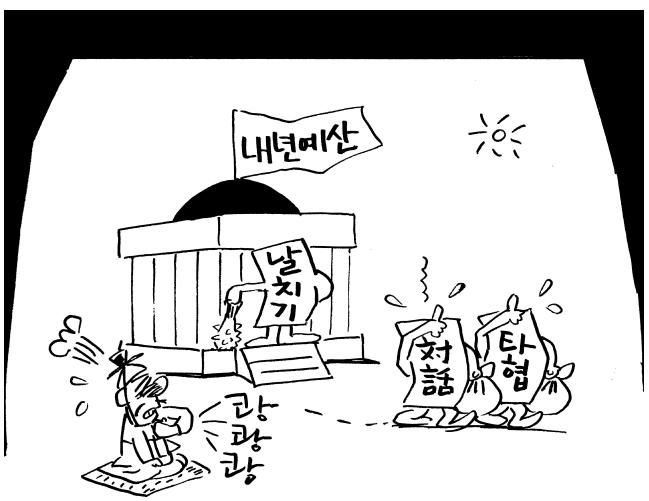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특정연령까지 살 확률을 보면 65세까지가 남자 83.7%, 여자 93.0%, 80세까지가 남자 50.2%, 여자 73.0% 등이었다. 남자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출생아가 앞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가 28.1%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줄어든 반면 여자는 16.7%로 0.6%포인트 늘었다. 뇌혈관질환 사망확률은 남자 10.7%, 여자 12.3%였고 심장질환은 남자 8.7%, 여자 11.3%였다.

/연립뉴스

빛의 만평

-김종두



국민들 가슴이 또 무너진다

“광주 전투비행장도 이전해야”

광산구청장 ‘광주공항 이전 관련 소음문제’ 제기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광주공항 인근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 구청장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광주공항 문제를 공방을 벌이면서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는 말하지 않고 있다”며

“군 공항의 소음 피해 문제부터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산 전투비행장 소음피해를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예로 들고 “현실에서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소음피해가 입증됐다”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소음피해는 소홀히 한 채 광주공항만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

민 구청장은 “전투비행장과 광주공항, 무안공항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정책사안”이라며 “논의가 빠른 속도로 마무리되면 각종 시설정비 예산에서 정부에게 얻어낼 게 많 아지지만, 논의가 늦어지면 2014년 개통될 호남고속철도 효과에 의해 광주공항문제는 강제로 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6일 회동을 하고 광주공항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광주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



한국지방신문협회 편집국장단회의가 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호텔 5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중편’ 참여 후속대책 공동 마련키로

한신협 회원사 편집국장단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 편집국장단은 9일 오후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편집국장단은 협회가 지난달 공동기획한 ‘대형마트의 두 얼굴’시리즈가 시의적절한 보도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편집국장단은 또, 이날 말 실시되

는 종합편성채널 심사와 관련,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참여하는 동아일보 컨소시엄과 함께 편집국 차원의 후속 대책을 공동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일보 조경완 편집국장을 비롯해 강원일보 최병수, 경남신문 박현오, 경인일보 홍정표, 대전일보 송광서, 부산일보 안병길, 제주일보 송승관 국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전남도립대 총장 구충근씨



전남도는 9일 담양에 있는 전남도립대 신임 총장에 구충근(51) 전 전남도의회 의원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구 전 의원은 도지사의 공식 임명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총장을 맡게 된다. 구 전 의원은 전남력비협회 회장과 광주·전남 우리민

족서로돕기 공동대표, 희망정치포럼 공동대표, 제8대 전남도의회 의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로 나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會社葬公告

當社 創業者이신 梁在奉(마오로) 名譽會長께서 二〇一〇年 十二月 九日 午後 一時 二十分에 善終 하셨습니다. 永訣式은 會社葬으로 舉行함을 알려드립니다.

永訣 미사
日時 二〇一〇年 十二月 十一日 午前 八時
場所 서울 中區 明洞 聖堂

二〇一〇年 十二月 九日

大信證券株式會社
大信資産運用株式會社
株式會社大信經濟研究所
任職員一同

大信松村文化財團 梁在奉(마오로) 理事長 以宿患 善終 茲以告訃

大信松村文化財團

個別訃告를 省略하오니 諒解바라오며 弔花 및 贈儀는 辭讓하오니 協調바랍니다.

葬禮委員長 李義淳
葬禮委員 孔甲俊 金泳仁 朴東熹 朴昇 裴昶模 元國喜 張忠植 拜上

訃告

梁會千 大人 濟州 梁公在奉(마오로) 以宿患 二〇一〇年 十二月 九日 午後 一時 二十分 善終 茲以告訃

殯所 서울 峨山病院 葬禮式場 三十號
焚香所 全羅南道 羅州市 松村洞(大信松村紀念館)
釜山市 東萊區 壽安洞(大信證券 東萊社屋)

永訣 미사
日時 二〇一〇年 十二月 十一日 午前 八時
場所 서울 中區 明洞 聖堂
葬地 京畿道 龍仁市 慕賢面 龍仁 天主教公園墓地

未亡人 崔甲順 女 永愛 孫子 洪碩
嗣子 會千 會金 美卿 會卿 洪齊
子婦 文弘根 婿 羅映昊 孫女 榮珉
李漁龍 李時榮 盧貞男 李幸源 李宰源
李炫美 李幸源 李幸源 李幸源

連絡處
殯所 (02) 301012230
焚香所 羅州 (061) 33413941
釜山 (051) 55715300
會社 (02) 76912033

葬禮委員長...李義淳
裴昶模 元國喜 張忠植 朴昇

周允 允禎 禎允 禎珉 洪大 洪碩